

Ethylene, 호남 톤당 550달러 제시

FOB Korea 535-545달러로 40달러 폭등 ... 수급타이트 · PE 강세 원인

Ethylene 가격은 12월12일 FOB Korea 톤당 535-545달러로 40달러 폭등했다.

아시아 에틸렌 시장은 수급타이트 및 PE 가격상승에 힘입어 강세를 나타냈으며, 특히 공급이 부족했던 동남아 시장은 CFR SE Asia 톤당 610-620달러까지 치솟았다.

12월 Cargo는 CFR Indonesia 톤당 610-620달러에 거래됐으나 판매기업들은 650달러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.

타이의 한 생산기업은 한 구매기업이 FOB 톤당 570달러를 요구했으나 이미 다른 기업과 계약이 돼 있어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.

호남석유화학은 주초 2300톤에 달하는 1월 거래물량 2개를 톤당 530달러에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금요일에는 550달러로 목표가격을 인상했다. 반면, 구매의사가 가격은 주초 톤당 500달러에서 520달러로 상승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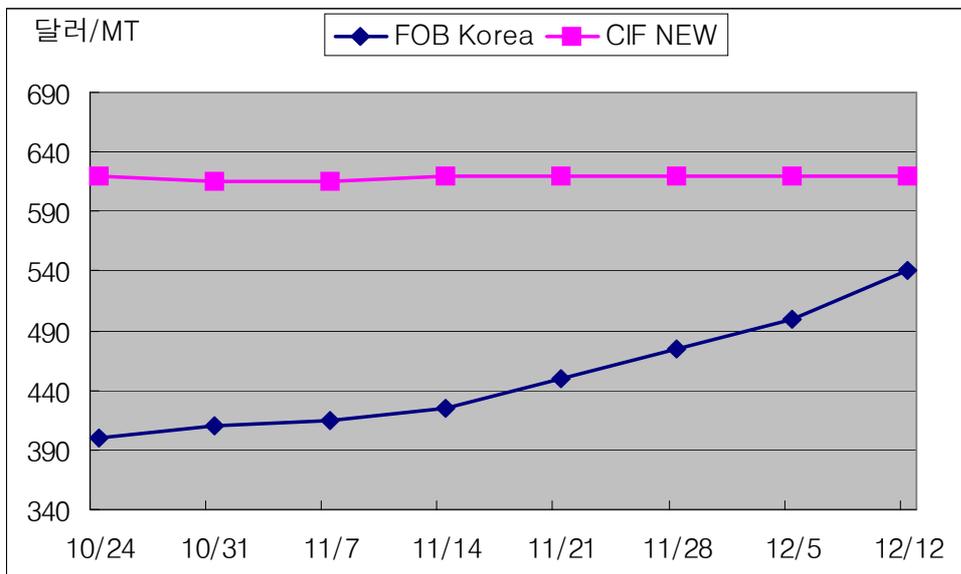
타이완 거래가격은 수요기업들의 가격 결정력 하락으로 CFR 톤당 550-580달러의 강세를 나타냈다.

JG Summit은 2주 일정의 플랜트 정기보수를 앞두고 재고확보에 나섰으며 2주 전부터 가동률은 80%로 20% 확대했다.

금요일 에틸렌 마진은 톤당 87달러에 달해 지난주 65달러에 비해 20달러 이상 상승했으며 나프타(Naphtha) 코스트는 CFR Japan 톤당 318.4달러, 전환 코스트는 135달러를 나타냈다.

다운스트림인 HDPE Film 및 LLDPE 거래는 수요일에 각각 톤당 740달러, 725달러에 마감했다.

Ethylene 가격추이



한편, 유럽의 에틸렌 가격은 12월12일 CIF NWE 톤당 615-625달러로 보합세를 나타냈으며 4/4분기 계약가격은 FD NWE 톤당 512유로를 형성했다.

<Chemical Journal 2003/12/16>